



애 기 똥 풀 도 서 관

#경기도 구리시 #임대료, 자산취득비 지원

애기똥풀이라는 작은 풀꽃이 있습니다.

애기똥풀은 우리나라 산과 들에 지천으로 피어있고, 봄부터 가을까지 쭉 지치지 않고 피어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잘 받지 못하는 양증맞고 작은 풀꽃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애기똥풀도서관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그 꽃의 아름다움과 생명력 그리고 지천에 널려있는 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 애기똥풀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나누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공부하고, 성장하는 도서관입니다. 구리시에 애기똥풀도서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꾸준히 뭔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일들을 조물조물 탄생시키는 곳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 알 수 있지요.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애기똥풀도서관의 2017 년은 어떠했나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서가정리를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썼지만, 제가 10년 전에 큰 수술을 하고부터는 도서 대출을 자제하면서 운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책꽂이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서가도 자꾸 늘어나는데, 도서관은 좁고, 그러다보니 책을 여기저기 꽂게 되어 서가가 산만한 면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수기로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긴급지원119사업을 통해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7년 동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임대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17년을 쉬지 않고 독서지도를 하면서 운영비를 충당해왔었는데, 이번 4개월의 임대료는 저에게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안겨주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른 독서 동아리가 4개가 탄생했습니다. 시동아리, 영어번역 동아리, 글쓰기 동아리, 독서 동아리 등 생각지도 못한 동아리 활성화가 일어났고, 저도 모처럼 동네 아줌마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공부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2017년에는 양쪽에 날개를 단 기분이었습니다. 사립도서관이 다 보니 혼자서 운영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긴급지원119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믿어주고, 물질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단 몇 달이라도 운영비 걱정 없이 지역사회에 나가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 해 5명의 여자들이 우리 도서관을 우물가 삼아 지역의 일들을 도모하자는 모임을 결성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이용자들은 애기똥풀 도서관을 매우 좋아합니다. 각 동아리 회원들은 애기똥풀 도서관에서 함께 책읽기를 하지 않았다면, 1년 동안 한 권의 책도 못 읽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며, 함께



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만족스러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책 읽기에 편식이 심했던 사람들도 동아리 회원들이 권하는 책들은 읽어보게 되고 그러다보면 독서 능력도 향상되고, 성장하는 것 같이라며 즐거워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애기똥풀 덕에 골목이 다 흰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건물의 사장님도 애기똥풀은 좋은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쓴다며 만날 때 마다 이야기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고 손해 보는 짓을 왜 하느냐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꾀꾀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속 들어갔습니다. 그저 좋아서 했던 일들이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행복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 20년이 다 되어 간답니다. 오늘도 여전히 30, 40대 엄마들은 “애똥에서 만나.” 라고 얘기하고, 40, 50대 엄마들은 “똥풀에서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기똥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2018년에는 청소년의 글쓰기와 책 출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후원을 받아 지도교사 5명이 함께 1년 동안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각 동아리 회장들의 모임을 꾸려 1년 동안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추진하고, 각 동아리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그림책 지도 교사로서 엄마 선생님들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역에서 성인들과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는 동안 도서관의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바자회 등을 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고, 후원자들을 더 모아야 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것처럼 열심히 하려 합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든 작은도서관 활동가 분들이 다 한결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에 있는 한, 그 지역의 안전과 평안과 시민의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지역의 엄마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영웅입니다.